

## 청소년의 영성이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

변영인\*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영성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청소년의 학년과 성별로 영성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남녀 527명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의미와 목적은 남자가 여자 보다 높으며, 초월성, 자비심, 자각, 연결성, 삶의 의미와 목적, 내적 자원은 중학생 보다 고등학생이 높았다. 둘째, 내적통제는 남자가 여자 보다 높으며, 고등학생의 호기심과 내적통제 수준이 중학생 보다 높았다. 셋째, 영성은 남녀 모두 자각, 삶의 의미와 목적이 공통적으로 자기주도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남자의 경우 연결성과 내적가치에 대한 영향력이, 여자의 경우 자비심의 영향력이 추가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청소년기의 영성은 성별 보다는 학년이 높으면 영성수준도 더 높으며, 뚜렷한 삶의 의미와 목적, 높은 자각수준이 청소년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심단어 :** 영성, 자기주도학습, 청소년, 자각, 삶의 의미와 목적

---

• 논문 투고일: 2013년 4월 15일

• 논문 수정일: 2013년 4월 30일

• 게재 확정일: 2013년 5월 4일

\*동서대학교

## I. 여는 글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과도기적 단계로서, 학업, 진로, 가족관계, 친구, 이성, 교사와의 관계, 건강 및 신체발육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다. 특히 한국 청소년들은 OECD 회원국 간 청소년 삶의 질을 비교한 결과 물질적 삶의 질은 13위이며, 위험행동은 2순위로 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다.<sup>1)</sup> 그런데 청소년들은 스트레스 대처 방법을 잘 모르며, 심리적 스트레스는 우울, 불안 등을 비롯한 내면화 문제행동이나 비행, 공격성, 자살충동 등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초래한다.<sup>2)</sup> 청소년기는 가치관의 혼란, 무기력, 이기심, 도덕 불감증,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전인건강(wellness)의 심각한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는 ‘내가 누구인가?’ 라는 의문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하는가?’ 로 물음을 바꾸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신체와 정신의 급격한 성장을 거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물질적인 조건으로만 성공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일깨울 수 있도록 영성 개발이 필요하다.<sup>3)</sup> 영성이라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 인간 행위를 유발하는 그 어떤 태도나 정신으로서, 구체화된 종교적 또는 윤리적 가치를 총칭한다. 영어에서 사용되는 영성(spirituality)은 어떤 정신적인 가치관을 소유하고 그 가치관을 내면화 시키다. 모든 잠재능력을 세심히 계발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한국 청소년에게 있어 가장 큰 스트레스는 학업으로서,<sup>4)</sup> 스트레스는 적응과 관련하여 주로 개인의 취

1) 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 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2012), 6.

2) 정미경,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내면화·외현화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의 매개효과”,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학회지』 제26권(2012): 272.

3) 고은이·김양순, “아동의 정서지능과 영성지능에 관한 연구”, 한국놀이치료학회, 『한국놀이치료학회지』 제11권(2008): 73.

4) 이신숙,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이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대학원, 2013), 106-107.

약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sup>5)</sup> 이러한 개인의 취약성을 사회나 학교에서 개선하고자 하나 효과는 미비하므로, 청소년의 잠재력을 높이면서 스트레스 관리 및 적응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영성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영성은 학교라는 환경 안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고, 학교 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학교환경과 개인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려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상호작용 과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sup>6)</sup>

영성교육의 목적은 모든 사람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예술적, 영성적 잠재가능성을 꽃피우게 하는 것이며,<sup>7)</sup> 기술 발달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인간중심의 본성 회복과 정신적·감정적 안정 추구는 시대적 요구라고 볼 수 있다.<sup>8)</sup> 이러한 영성은 청소년의 심리적, 정서적 영역에 높은 수준의 긍정적 영향력이 있으며,<sup>9)</sup> 영성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은 낮아지며, 우울수준이 높은 경우라도 영성수준을 증가시키는 경우 우울수준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sup>10)</sup> 또한 영성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신

5) 이경은·하은혜, “청소년 사회불안에 대한 취약성-스트레스모델: 대인불안과 수행불안을 중심으로”,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인지행동치료」 제11권(2011): 51.

6) 홍대우·김춘경, “청소년 전인건강 척도 개발”,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제9권(2008): 79.

7) 홍은숙, “행복한 학교를 위한 교육적 성찰”, 한국도덕교육학회, 「도덕교육연구」 제24권(2012): 258-259.

8) 김복영, “홀리스틱 교육이 추구하는 목적으로서의 영성지능”, 한국홀리스틱교육학회, 「홀리스틱교육연구」 제15권(2011): 117.

9) 유성경·심혜원,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제16권(2002): 189-206; 유성경·홍세희·최보윤, “가정의 위험요소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애착, 실존적 영성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제18권(2004): 393-408; M. Good & T. Willoughby, “The Role of Spirituality versus Religiosity in Adolescent Psychosocial Adjust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 (2006): 41-55.

10) M. J. Pearce, T. D. Little, & J. E. Perez, “Religiousn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2(2003): 267-276; J. E. Perez, T. D. Little, & C. C. Henrich, “Spirituality and Depressive Symptoms in a School-Based Sample of Adolescents: A Longitudinal

체적 건강관리도 잘하는 것으로 보고 되어 청소년 전인건강을 위하여 영성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sup>11)</sup> 그러나 많은 연구들은 영성을 2가지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기독교 영성이냐 일반영성이냐를 구분하려고 하나,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영성도 결국 그 뿌리는 기독교영성이다. 그러므로 영성은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하며, 성경적 차원의 삶이 필요하고, 기독교 영성은 인간 삶의 모든 차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영성이란 교회의 삶 전체에 걸쳐 기초와 원천이 되는 생명의 본질을 뜻하며, 참된 영성은 하나님과 인간의 친밀한 교통의 관계를 체험과 인식, 삶과 실천에 걸쳐 발견하는 것이며 우선적으로 초월자와의 만남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참된 영성은 하나님 중심적이며 타인중심적인 삶의 과정으로 설명하면서, 영성이란 하나의 자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및 사람들과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맺어가면서 그리스도다움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다.<sup>12)</sup> 그러므로 청소년에게 영성상담과 교육은 하나님과의 관계맺기라 할 수 있으므로

---

Examination of Mediated and Moderated Effec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4(2009): 380–386; L. S. Wright, C. J. Frost, & S. J. Wisecarver, “Church Attendance, Meaningfulness of Religion,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2(1993): 559–568.

- 11) 송순재, “학교교육의 방향전환을 위한 새로운 영성 교육”, 한국홀리스틱교육학회, 『홀리스틱교육연구』 제6권(2002): 131–163; 채유경, “지각된 가족 기능성, 부부갈등, 자아존중감, 영성 및 청소년 공격성 간의 관계”,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예술심리치료연구』 제1권(2005): 74–90; D. R. Hodge, P. Cardenas, & H. Montoya, “Substance Use: Spirituality and Religions Participation as Protective Factors among Rural Youths,” *Social Work Research* 25(2001): 153–161; D. W. Holder, R. H. Durant, & T. L. Harris, “The Association between Adolescent Spirituality and Voluntary Sexual Activity,”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6(2000): 295–302; L. Miller, M. Davies, & S. Greenwald, “Religiosity and Substance Use and Abuse among Adolescents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9(2000): 1190–1197; J. A. A. Sneath, M. E. Broome, S. Kelber, & B. A. Warady, “Coping Strategies Utilized by Adolescents with End Stage Renal Disease,” *Nephrology Nursing Journal* 31(2004): 41–49.
- 12) 권택조, 『영성발달』 (서울: 예찬사, 2000), 116.

교회청소년은 물론이고 교회 밖에 있는 청소년들 까지도 하나님과의 연결성을 돈독하게 하는 길이라 하겠다. 일단 관계를 맺고 나면 스스로 길을 넓혀 나가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능력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다. 자기주도 학습이란 학자에 따라 정의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욕구를 진단하고 학습 목표를 설정하며 학습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적합한 학습 전략을 세워 실행한 다음 학습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sup>13)</sup> 혹은 학습자가 학습조력자인 교사나 기타 성인, 타 학습자들과의 접촉으로부터 배제된 개인학습을 말한다. 청소년 시기는 스트레스와 자아정체감 및 미래 설계를 위한 자기주도적 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이나 학교현장에서는 지식전달에 치우친 경향이 있으며, 모든 청소년은 영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소년이 구체적인 학습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적합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능력인 자기주도학습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성이 필요하며, 청소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삶의 자리(Sitz im Leben)로서 영성은 중요한 요인이다.<sup>14)</sup> 그러나 지금까지의 영성에 대한 연구는 감성지능,<sup>15)</sup> 불안감,<sup>16)</sup> 청소년 행복,<sup>17)</sup> 탄력성,<sup>18)</sup> 공격성<sup>19)</sup> 등 학업과 직접적 요

13) Malcolm S. Knowles, *Self-Directed Learning: A Guide for Learners and Teachers* (Chicago: Follett Publishing Co, 1975), 박외자,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학습참여태도가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대학원, 2010), 18에서 재인용.

14) 현정수, “청소년 행복의 구성요소에 관한 이론적 재구성과 척도개발 연구”(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대학원, 2011), 87.

15) 고은희·김양순, “아동의 정서지능과 영성지능에 관한 연구”, 69-80.

16) 박준하, “청소년 기독교 영성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검증”(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대학원, 2011).

17) 현정수, “청소년 행복의 구성요소에 관한 이론적 재구성과 척도개발 연구”.

18) 이해리·조한익,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개발”, 한국청소년연구원,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2005): 161-206.

19) 채유경, “지각된 가족 기능성, 부부갈등, 자아존중감, 영성 및 청소년 공격성 간의 관계”, 74-90.

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영성이 종교영역에서 추상적으로 논의 되는 요인이 아닌, 직접적으로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심리영성학적 측면에서의 접근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주도적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구현 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학습과정과 조건이 구비되어야 하며, 영성 또한 지속적 노력으로 개발되어질 수 있다. 즉, 성별이나 학년별 차이는 영성상담 이나 교육으로 성장이 빨라질 수 있으나, 그대로 방치한다면 증가 폭은 차 이가 없을 것이다. 특히 영성에 대한 성별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는 제 각각이다. 자기주도학습능력도 개인차가 있지만 학습의 경험이 많은 고등 학생이 더 높을 수 있으나 그 차이의 정도가 어떠한지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영성과 자기주도학습능력의 관계를 통해서 청소년 영성상담과 교육의 필요성 및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심리 및 영적 발달의 부적응으로 열등감, 폭력, 기출, 우울증, 품행장애, 성적 유희, 또래집단, 외로움, 균형 잃은 정서, 가정문제 등 긴급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시한 폭탄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sup>20)</sup> 특히 교육열풍이 심한 한국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에 따른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요인으로서 기독교영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성이 청소년의 학업에 대한 자기주도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성별과 학년별 영성 수준의 차이와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차이를 분석하며, 다음으로 영성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여 청소년 영성상담의 필요성 및 영성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0) 오윤선, “청소년발달특성 문제에 관한 기독교 영성과 상담심리의 통합적 접근”,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1권(2008): 225.

## II. 펴는 글

### 1. 영성의 이해

영성이라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 인간 행위를 유발하는 그 어떤 태도나 정신으로서, 구체화된 종교적 또는 윤리적 가치를 총칭한다.<sup>21)</sup> 이러한 영성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어,<sup>22)</sup> 그 개념이 불확실하며 복잡하나 크게 종교적 맥락(배타적 관점)과 비종교적 맥락(포괄적 관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sup>23)</sup> 종교적 맥락에서 영성은 내적평화나 신비적 체험, 고차원적 의식과 관련되며, 비종교적 맥락에서는 철학과 인간학적 관점에서 주로 실존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두 맥락은 광범위한 영성개념의 스펙트럼 상에서 비교적 차별적인 위치를 갖고 있지만 서로 무관할 수 없어 개념상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지만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영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Gardner는 영성을 “우주에서의 우리의 존재와 역할에서부터 삶, 죽음, 행복, 비극 등에 이르는 우주와 실존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깊이 사고하는 능력이며 다른 사람에게도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현대 영성학에서도 신학적 개념의 본질을 잃지 않고 인간학적 입장에서 모든 영역의 영성을 찾는 것이 과제라고 하였다.<sup>24)</sup>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삶은 자연스럽게 성장되는 것이지 어떤 인간적인 개발 노력으로 이루

21) Jordan Aumann, *Spiritual Theology*, 이홍근역, 『영성신학』 (서울: 분도출판사, 1991), 18.

22) 이상우, “영성의 통합적 의미”,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월례회자료집』 제3권(2010): 1.

23) 이지영, “홀리스틱 교육의 기초로서 영성 및 영적 발달 개념에 대한 논의”, 한국홀리스틱교육학회, 『홀리스틱교육연구』 제16권(2012): 1-2.

24) 김용해, “현대 영성의 초월철학적 이해”, 한국가톨릭철학회, 『가톨릭철학』 제10권(2008): 128.

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영성에 대해 가장 깊이 이해하고 정통한 사람들은 적절한 방법들을 개발해 왔으며,<sup>25)</sup> 그리스도 다음을 향한 참된 영성 발달을 위해 무엇을 개발해야 할 것인가를 논하기 위해 현대적 영성을 인식론, 발달론, 신경심리학적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인식론적 접근으로 Parker J. Palmer는 인식론적 차원에서 삶의 방법을 알기 위해 영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영성에 있어서 교육적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 Palmer는 “기도 중심적인 인식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기도란 “관계를 추구하고 상호성과 책임성의 인력을 느껴보려고 하며, 만물을 연결하고 초월적 중심을 앞으로써 공동체 속에 자신을 정립시키고자 하는 시도이며,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개방하고 재창조하며, 삶의 온전함 속에서의 자신의 회복인 것이며 관계성의 실천”이라고 하였다.<sup>26)</sup> 발달론적으로 접근하면 영성이란 전체적인 인간 삶을 바라보는 이해가 필요하다. 즉 영성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총체적 인간 삶의 영향을 받는다는 관점에서 이해되어 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영성은 인간 발달 과정과 함께 발달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sup>27)</sup> 신경심리학적 접근으로서 기독교 영성과 비교하여 Benedict J. Groeschel은 합리적인 이성이나 감성의 충돌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저 깊은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소리를 듣게 되는 “내면의 소리” 즉 “영적”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경험들을 시대나 민족 혹은 문명을 초월하여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들은 기계문명을 추구하는 우리 사회의 뒷전에 밀려 신앙이나 종교의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혹은 자신의 내면이 드러

25) Iris V. Cully, *Education for Spiritual Growth*, 오성춘 외역, 『영적성장을 위한 교육』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86), 241.

26) Parker J. Palmer, *To Know As We Are Known*, 박원호 역, 『기독교 교육 인식론』 (서울: 도서출판 광나루, 1991), 15-43.

27) Joann Wolski Conn, “Spiritual Formation,” *Theology Today* 56, no.1(1999): 86, 조은하, “통전적 영성교육 연구”(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2001), 114에서 재인용.

내는 심리학적 현상 정도로만 다루어지고 있다고 말한다.<sup>28)</sup> 그렇다면 내면의 소리란 무엇인가? 이것을 도나 조하와 이안 마셜은 “영성”이라고 불렀다. 인간은 신체와 정신,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영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영성이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어떤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자기 자신과 환경 너머를 보고, 현실을 뛰어넘어 의미와 가치를 찾는 능력이라고 말한다. 도나 조하와 이안 마셜은 이러한 능력이야말로 인간만이 갖는 고유한 것이며,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영성이란 말은 일차적으로 종교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삶의 다양한 측면을 지칭하거나, 철학적으로 물질적, 육체적인 것과 대비되는 비물질적 본질, 그 존재 양식이나 인식양식을 가리킨다.<sup>29)</sup> 더 넓은 의미로 영성은 “한 사람의 행동이 유래된 태도나 정신의 바탕이 되는 어떤 종교적 또는 윤리적 가치”로 정의 할 수 있다.<sup>30)</sup> 영성에 관한 종교심리학적 이해가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의 변화를 바탕으로 하는 내적동기와 인격적 성숙에 집중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영성은 궁극적으로 자기 초월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간의 깊은 갈망으로 인격의 중심부에서 생긴다.<sup>31)</sup> 그러므로 영성은 종교의 틀 안에서만 논의되는 개념이 되어서는 안되며, 인간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도 영성은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즉, 어떤 정신적인 가치관을 소유하고 그 가치관을 내면화시키며, 그 정신을 이상화하는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영성을 이해 할 필요가 있다.

28) Benedict J. Groeschel, *Spiritual Passages*, 김동철 역, 『심리학과 영성』 (서울: 성바오로, 2002), 14.

29) 신승환, “영성 개념의 철학적 사유 지평”, 한국가톨릭철학회, 『가톨릭 철학』 제10권 (2008): 28.

30) 전명수, “개인주의적 영성운동과 세속화 논쟁”,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 201』 제13권 (2010): 55-79.

31) 박노권, “심리적 건강과 영성”, 한남대학교 기독교문화연구원, 『기독교문화연구』 제11권 (2006): 154.

## 2. 자기주도학습능력

‘인간은 선천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sup>32)</sup> 자기주도학습에 관한 연구가 끊임없이 수행되어 오고 있다. 자기주도학습은 3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 첫째, 동기적 측면으로서, 학습자가 학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습은 상당 부분 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sup>33)</sup> 예를 들어, 학습자에게 다소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을 경우, 학습자들은 과제해결을 시도하기도 전에 포기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주된 원인이 동기가 부족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sup>34)</sup> 동기에 대한 원천은 호기심과 흥미, 목표와 목표 지향성, 자기효능신념이다.<sup>35)</sup> 호기심과 흥미는 학습자가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재빨리 적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동기를 유발하고 유지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정한 결과를 내기 위해 실행하는 개인의 행동과 능력에 대한 신념인 자기효능감 역시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된다.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자의 학습을 지원하는 방법으로써 학습자는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과정을 통해 동기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들을 확인하고, 이로 인해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다.<sup>36)</sup>

32) Mark Hawkes, “Facilitating Educational Restructuring: Apply Lessons Learned from the Past,” *Educational Change* 113 (1992): 96–102.

33) John M. Keller, “Strategies for Stimulating the Motivation to Learn,” *Performance & Instruction* 26 (1987): 1–7.

34) 주호수, “자기 주도적 학습의 개념화와 교육적 시사점”, 한국교육과정학회, 「교육과정연구」 제21권(2003): 211.

35) Marcy P. Driscoll, *Psychology of Learning for Instruction*, 3rd. ed.(Boston: Person Education, 2005), 김세리·장선영·남창우, “고등학교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영향을 주는 교수매체 활용 관련 변인 탐색”, 한국교육정보미디어연구, 「교육정보미디어연구」 제18권(2012): 316에서 재인용.

36) 주호수, “자기 주도적 학습의 개념화와 교육적 시사점”, 212.

둘째, 메타인지적 측면으로서, 자신의 인지과정에 대한 지식과 이와 관련된 결과물을 의미한다. 메타인지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학습전략뿐만 아니라, 학습과정과 결과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검토하고 분석하는 등의 사고과정을 의미한다.<sup>37)</sup> 학습자는 메타인지적 사고과정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지식을 내면화할 수 있는데, 메타인지는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전략적 측면에서, 학습자는 학습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자기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자의 학습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행동통제 능력, 그리고 학습을 위해 학습 환경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거나 창조하는 능력을 강조한다.<sup>38)</sup> 이러한 이유로,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전략을 세우고, 행동을 통제하고, 학습환경을 선택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주도학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3.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2년 3월 5일부터 9일까지 창원지역 중학교 2, 3학년생과 고등학교 1, 2학년생 5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530부를 회수하였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3명을 제외한 527명을 선정하였다. 표본의 추출방법은 편의표본추출법이며 연구대상자의 성별 학년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37) Gary D. Borich, *Effective Teaching Methods*, 5th. ed. (Boston: Pearson Education, 2002), 김세리·장선영·남창우, “고등학교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317에서 재인용.

38) Paul R. Pintrich, “The Role of Motivation in Promoting and Sustaining Self-regulated Lear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31(2001): 459–470.

〈표 1〉 성별 학년별 연구 대상

n(%)

	남자	여자	계
중학생	112(47.5)	124(52.5)	236(100.0)
고등학생	97(33.3)	194(66.7)	291(100.0)
계	209(39.7)	318(60.3)	527(100.0)

## 2) 연구내용 및 도구

영성관련 측정 도구는 개발 중에 있으나, 청소년을 위한 도구는 이은철·김민정의<sup>39)</sup> 도구를 사용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27개 문항으로 6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도구의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는 5점을,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을 그리고 ‘매우 그렇지 않다’는 1점을 부여하여 영성수준을 산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성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구성타당도 검증은 위한 요인분석 방법은 주축인자법(principal factor method)을, 축의 회전은 직교회전(varimax)법을 사용한 결과 〈표 2〉와 같으며, 전체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  $\alpha$  계수는 0.868~0.81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39) 이은철, 김민정(2010)은 국내외 영성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64문항을 이용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46개 문항을 본 조사용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문항수에 비하여 인자분석을 통하여 도구의 타당도를 확보함에 있어 사례수가 5-6배 필요하나, 중학생 50명과 고등학생 149명 총 190명을 분석에 사용함으로써 사례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에서 충분한 사례수를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문항 신뢰도가 낮거나, 공통성이나 인자점수(factor score)가 낮은 문항을 제거하여 최종 영성수준 측정도구를 제작하였다.

〈표 2〉 영성도구에 대한 구성타당도 분석 결과

	초월성	자비심	자각	연결성	삶의 의미와 목적	내적 자원
하느님은 나와 함께 있다	.801	.095	.106	-.038	.054	.116
나는 우주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안다	.799	.098	.121	.084	.045	.143
나는 내 자신의 영적 차원으로 갈 수 있다	.739	.160	.183	.094	.060	.142
나는 자아를 넘어 더 큰 나를 발견한다.	.723	.085	.138	.269	.186	.121
나의 내적 힘은 높은 힘에 대한 믿음과 관련 된다	.711	.142	.133	.187	.253	.092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잘 보살핀다	.175	.825	.144	.148	.131	.079
나는 타인에게 봉사하는 것을 즐긴다	.227	.809	.039	.192	.030	.070
나는 타인을 배려한다	.084	.774	.146	.124	.200	.135
나는 자비심이 있다	.055	.610	.176	.151	.333	.169
나는 상대 잘못에 대해 불쌍하고 측은하게 느낀다	.103	.586	.173	.052	.096	.377
나는 대인관계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 차린다	.133	.189	.813	.211	.192	.122
나는 현재 벌어지는 상황을 잘 이해하고 파악한다	.162	.099	.795	.200	.213	.206
나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차린다.	.196	.173	.771	.219	.230	.169
나는 지금 나의 생각과 느낌을 알아차린다.	.233	.130	.613	.288	.201	.112
나는 사람을 대할 때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	.368	.233	.594	.418	-.034	.129
나는 행복하다	.022	.126	.073	.773	.204	.130
나는 충만하다	.179	.100	.228	.720	.140	.197
나는 타인을 친근하게 느낀다.	.068	.297	.292	.715	.007	.020
나는 자신감이 있다	.114	.033	.207	.626	.344	.137
나는 내가 살고있는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	.345	.214	.329	.590	.106	.046
나는 내삶에 방향과 목적을 제공하는 인생목표가 있다	.094	.204	.210	.161	.793	.061
내 삶은 의미와 목적이 있다	.141	.199	.210	.127	.771	.135
나는 내가 사는 이유를 안다	.166	.115	.129	.219	.729	.188
나는 주어진 모든 일에서 의미를 발견한다.	.375	.210	.243	.129	.533	.291
나는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제할 수 있다.	.156	.177	.210	.111	.117	.801
나는 내가 뜻하는 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다	.176	.161	.126	.211	.281	.748
힘든상황에서도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는 힘이있다	.333	.246	.166	.147	.091	.670
고유값 변량 누적변량	3.764 13.940	3.285 12.165 26.105	3.251 12.040 38.145	3.166 11.726 49.871	2.693 9.976 59.847	2.262 8.378 68.226
Cronbach's $\alpha$	.868	.851	.885	.826	.828	.812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하위요인의 요인점수(factor score)는 각 변수가 요인간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요인점수가 0.5 이상이면 높은 적재량(factor loading)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초월성 요인에 높게 적재된 변수는 제시된 순서대로 5개가 높게 적재되었기 때문에 이들 변수로 초월성 요인 점수를 산출하였다.

자기주도적 학습 척도는 Guglielmino<sup>40)</sup>가 개발한 자기주도적 학습준비도 척도(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SDLRS)를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박외자<sup>41)</sup>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척도는 영성과 마찬가지로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는 27개 문항으로서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분석 결과 cronbach  $\alpha$  계수는 0.914~0.672로서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통계처리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pc Ver.18.0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성별 학년별 차이분석을 위하여 다변량 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영성과 자기주도학습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과 단계별 투입(stepwise) 방식의 다중 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4. 연구의 결과 분석

성별 학년별 영성과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차이 검증을 위하여 MANOVA

40) L. M. Guglielmino, "Development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Ph.D. diss., The University of Georgia, 1977, 64-67.

41) 박외자,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학습참여태도가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대학원, 2010), 56-58.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sup>42)</sup>를 실시하였으며, 기본 가정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표 3>과 같다.<sup>43)</sup>

<표 3> 영성에 대한 공분산 행렬과 오차분산에 대한 동일성검증

		Box's M	F	자유도 1	자유도 2	p
공분산 동일성 검증		126.027	1,956	63	447996.562	.000
오차분산 동일성 검증	초월성		4,001	3	517	.008
	자비심		.329	3	517	.804
	자각		2,104	3	517	.099
	연결성		.145	3	517	.933
	삶의 의미와 목적		.546	3	517	.651
	내적자원		1,105	3	517	.347

영성에 대한 Box의 M 검증 결과 유의수준이 0.05보다 낮게 나타나 공분산 행렬이 동일하다는 영가설에 위배되었으나 자유도가 충분히 큰 경우라 분석을 계속 진행하였다.<sup>44)</sup> 오차분산의 경우 유의수준이 모두 0.05보다 높게 나타나 종속변수의 오차분산이 동일하다고 가정 할 수 있으나 초월성은  $p=.008$ 로 낮게 나타났다.

42) MANOVA는 집단간 종속변수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증할 때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ANOVA와 같으나, 종속변수가 2개 이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다변량분산분석은 종속변수들간의 상호관계를 동시에 고려하여 분석을 하게되므로 ANOVA 2번하는 결과와 MANOVA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채서일·김선철·최수호, 『SPSS win을 이용한 통계분석』(서울: B&M BOOKS, 2006), 218-220]. 그러나 종속변수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면 MANOVA로 분석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분산-공분산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검증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검증 결과를 제시하였다(Box's M).

43) 다변량검증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먼저 기본가정에 대한 확인을 한 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하여 차이가 있는지 다변량검증결과를 확인 후 유의한 차이가 있다면 개체-간 효과 검증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종속변수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 후 기술통계량에서 성별이나 학년별 기술통계량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그러나 결과를 표로 제시함에 있어 기술통계량을 먼저 제시하였다.

44) 채서일·김선철·최수호, 『SPSS 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227.

영성에 대한 성별, 학년별과 두 독립변인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 결과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표 4> 영성에 대한 다변량 검증 결과

효과		값	F	가설 자유도	오차 자유도	p
성	wilks' $\lambda$	.963	3.299	6	512	.003
학년	wilks' $\lambda$	.944	5.037	6	512	.000
성×학년	wilks' $\lambda^{45)}$	.956	4.085	6	512	.001

성별에 따른 종속변인에 대한 다변량 검증 결과 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3.299, p=.003$ ), 학년별로도 종속변인에 대한 다변량 검증 결과 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5.037, p=.000$ ). 또한 성별 학년별 2차 상호작용에 대한 다변량 검증 결과 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4.085, p=.001$ ).

다변량 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독립변인들에 대하여 종속변인의 개체-간 효과 검증 결과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45) 다변량검증결과에서 여러 지수가 나오나 오차항의 크기를 가장 줄일 수 있는 Wilk's  $\lambda$ 에 대한 유의수준을 읽는다. 이때 유의수준이 0.05보다 작으면 독립변수에 따라 종속변수가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며, 차이가 난다면 여러개의 종속변수 중 어떤 변수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체-간 효과 검증 결과 유의수준이 0.05보다 적은 변수를 확인 한다.

〈표 5〉 영성에 대한 개체-간 효과검증

	종속변인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합	F	p
성	초월성	2,606	1	2,606	3,394	.066
	자비심	.974	1	.974	1,767	.184
	자각	1,142	1	1,142	1,963	.162
	연결성	.082	1	.082	.156	.693
	삶의 의미와 목적	3,794	1	3,794	5,645	.018
	내적자원	.586	1	.586	.876	.350
학년	초월성	8,788	1	8,788	11,447	.001
	자비심	8,792	1	8,792	15,952	.000
	자각	11,570	1	11,570	19,878	.000
	연결성	2,968	1	2,968	5,624	.018
	삶의 의미와 목적	11,983	1	11,983	17,832	.000
	내적자원	4,988	1	4,988	7,459	.007
성 × 학년	초월성	9,719	1	9,719	12,659	.000
	자비심	2,932	1	2,932	5,319	.021
	자각	9,906	1	9,906	17,020	.000
	연결성	1,508	1	1,508	2,859	.091
	삶의 의미와 목적	5,172	1	5,172	7,696	.006
	내적자원	1,499	1	1,499	2,241	.135
오차	초월성	396,940	517	.768		
	자비심	284,952	517	.551		
	자각	300,911	517	.582		
	연결성	272,801	517	.528		
	삶의 의미와 목적	347,421	517	.672		
	내적자원	345,718	517	.669		

〈표 5〉에 의하면 성별로는 삶의 의미와 목적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5.645, p<.05$ ). 학년별로는 초월성( $F=11.447, p<.001$ ), 자비심( $F=15.952, p<.001$ ), 자각( $F=19.878, p<.001$ ), 연결성( $F=5.624, p<.05$ ), 삶의 의미와 목적( $F=17.832, p<.001$ ), 내적자원( $F=7.459, p<.01$ )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학년별 초월성에 대한 상호작용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12.659, p<.001$ ), 자비심( $F=5.319, p<.05$ )과

자각( $F=17.020, p<.001$ ), 삶의 의미와 목적( $F=7.696, p<.01$ )도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결성과 내적자원에 대한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에 의한 개체-간 효과검증 결과를 해석하기 위한 성별 학년별 영성수준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6>과 같다

<표 6> 성별 학년별 영성수준 기술통계 (M±SD)

		초월성	자비심	자각	연결성	삶의 의미와 목적	내적자원
남	중	2.17±.98	3.00±.80	3.05±.85	3.08±.75	3.08±.89	2.81±.87
	고	2.75±.96	3.42±.66	3.64±.64	3.35±.67	3.60±.73	3.12±.82
여	중	2.60±.81	3.06±.75	3.24±.82	3.16±.78	3.11±.82	2.85±.82
	고	2.58±.80	3.19±.75	3.26±.72	3.21±.70	3.20±.83	2.94±.77

<표 5>의 결과와 <표 6>에 의하면 삶의 의미와 목적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으나 초월성, 자비심, 자각, 연결성 및 내적자원은 성별차이가 없었다. 학년별로는 초월성, 자비심, 자각, 연결성, 삶의 의미와 목적, 내적자원 모두 고등학생이 중학생 보다 높았다. 성별 학년별 초월성에 대한 상호작용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의 학년별 변화가 여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비심과 자각, 삶의 의미와 목적도 남자의 학년별 변화가 여자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연결성과 내적자원에 대한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차이 검증을 위하여 MANOVA를 실시하였으며, 기본 가정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표 7>과 같다.

〈표 7〉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공분산 행렬과 오차분산에 대한 동일성검증

		Box's M	F	자유도 1	자유도 2	p
공분산 동일성 검증		42.080	2,312	18	643679.006	.001
오차분산 동일성 검증	호기심		.581	3	523	.628
	학습흥미		8.938	3	523	.000
	학습내적통제		2.087	3	523	.101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공분산 행렬이 동일하다는 영가설을 검증한 결과 위배되었으나(Box's  $M=42.080$ ,  $p=.001$ ), 오차분산에 대한 호기심과 학습내적통제는 유의수준이 모두 0.05이상으로 나타나 기본가정이 충족되었다. 그러나 학습흥미( $F=8.938$ ,  $p=.000$ )에 대한 오차분산 동일성 가정은 만족되지 못하였다.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다변량 검증 결과 〈표 8〉과 같이 나타났다.

〈표 8〉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다변량 검증 결과

효과		값	F	가설 자유도	오차 자유도	p
성	wilks' $\lambda$	.963	6.699	3	521	.000
학년	wilks' $\lambda$	.877	24.460	3	521	.000
성×학년	wilks' $\lambda$	.949	9.292	3	521	.000

〈표 8〉에 의하면 성별에 따른 종속변인에 대한 다변량 검증 결과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6.699$ ,  $p=.000$ ), 학년별 로도 종속변인에 대한 다변량 검증 결과 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24.460$ ,  $p=.000$ ). 또한 성별 학년별 2차 상호작용에 대한 다변량 검증 결과 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9.292$ ,  $p=.000$ ).

다변량 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독립변인들에 대하여 종속변인의 개체-간 효과 검증 결과 <표 9>와 같이 나타났다.

<표 9>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개체-간 효과검증

	종속변인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합	F	p
성	호기심	1,335	1	1,335	3,416	.065
	학습흥미	1,187	1	1,187	3,075	.080
	학습내적통제	4,028	1	4,028	9,406	.002
학년	호기심	8,158	1	8,158	20,881	.000
	학습흥미	.032	1	.032	.083	.773
	학습내적통제	27,186	1	27,186	63,486	.000
성 × 학년	호기심	2,244	1	2,244	5,743	.017
	학습흥미	.004	1	.004	.009	.924
	학습내적통제	11,211	1	11,211	26,180	.000
오차	호기심	204,333	523	.391		
	학습흥미	201,944	523	.386		
	학습내적통제	223,957	523	.428		

<표 9>에 의하면 성별로는 내적통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9.406, p<.01$ ). 학년별로는 호기심( $F=20.881, p<.001$ )과 내적통제( $F=63.486, p<.001$ )는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학습흥미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두 독립변수에 대한 상호작용은 호기심( $F=5.7431, p<.05$ )과 내적통제( $F=26.180, p<.001$ )는 유의한 효과가 있으나 학습흥미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 학년별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10>과 같이 나타났다.

〈표 10〉 성별 학년별 자기주도학습의 기술통계 (M±SD)

		호기심	학습흥미	학습내적통제
남	중	3.10±.63	2.86±.53	3.46±.66
	고	3.49±.63	2.85±.82	4.23±.59
여	중	3.13±.69	2.96±.59	3.58±.70
	고	3.25±.57	2.94±.57	3.75±.65

〈표 9〉의 결과와 〈표 10〉에 의하면 학습내적통제는 남자가 여자 보다 높으며, 호기심과 내적통제 모두 중학생 보다 고등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별 학년별 호기심과 내적통제 모두 남학생의 학년 변화가 여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영성이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1〉과 같이 나타났다.

〈표 11〉 영성과 자기주도학습의 상관계수

		초월성	자비심	자각	연결성	삶의 의미와 목적	내적자원
호기심	남	.433**	.482**	.545**	.527**	.497**	.469**
	여	.380**	.509**	.574**	.502**	.527**	.487**
학습흥미	남	.348**	.322**	.359**	.404**	.387**	.395**
	여	.349**	.335**	.339**	.334**	.384**	.345**
학습내적 통제	남	.188**	.318**	.432**	.396**	.368**	.265**
	여	.134*	.329**	.379**	.297**	.367**	.202**

\* p&lt;.05 \*\* p &lt; .01

〈표 11〉에 의하면 영성은 자기주도학습능력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월성의 경우 남학생의 호기심과 가장 높은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433, p<.01$ ) 학습내적 통제와 초월성과의 상관 정도가 가장 낮았다. 자비심은 여학생의 호기심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509, p<.01$ ), 학습흥미와 학습내적통제와 0.3 이상의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각은 남녀 모두 호기심과 높은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남  $r=.433, p<.01$ ; 여  $r=.574, p<.01$ ), 남학생의 학습내적통제와도  $r=.432 (p<.01)$ 의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결성도 남학생의 호기심과 가장 높은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527, p<.01$ ), 삶의 의미와 목적은 여학생의 호기심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527, p<.01$ ), 내적자원도 여학생의 호기심과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487, p<.01$ ).

영성의 하위요인들이 자기주도학습 전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Stepwise 방식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2>와 같이 나타났다.<sup>46)</sup>

<표 12> 영성이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구분	종속변인	$\beta$	t	F	R <sup>2</sup>
남	자각	.230	3.17**	42.07**	.319
	삶의 의미와 목적	.229	3.54**		.396
	연결성	.241	3.45**		.431
	내적 자원	.140	2.15*		.441
여	삶의 의미와 목적	.241	4.01**	66.37**	.284
	자각	.263	4.56**		.349
	자비심	.245	4.48**		.387

\* :  $p < .05$  \*\* :  $p < .01$

<표 12>에 의하면 남자의 경우 영성 하위요인의 도입 순서는 자각, 삶의 의미와 목적, 연결성, 내적자원 순이며 전체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46) 독립변수를 투입하는 방식을 Stepwise 방식을 사용한 것은 영성 하위 요인 6개에 대한 서로간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순수히 독립변수만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함이다.

44.1%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 중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는 연결성이  $\beta=.241$ 로 자각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삶의 의미와 목적이 가장 먼저 도입되었으며, 그 다음은 자각, 자비심 순이며 설명력은 38.7%이며, 자각의 기여도가 가장 높았다.

자각은 남자와 여자 모두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기여도가 있으나 여자의 기여도가 남자 보다 높았으며, 삶의 의미와 목적도 여자( $\beta=.241$ )가 남자( $\beta=.229$ ) 보다 높았다.

### III. 닫는 글

#### 1. 연구의 논의

청소년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영성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지나친 교육열로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은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최근 기독교영성을 사회과학분야에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sup>47)</sup> 전인교육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영성은 종교적 맥락에서 내적평화나 신비적 체험, 고차원적 의식과 관련되며, 비종교적 맥락에서는 철학과 인간학적 관점에서 주로 실존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 객관적인 통계결과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남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영성이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연구하였다.

청소년의 영성과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관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도구를 검증한 결과, 영성은 초월성, 자비심, 자각, 연결성, 삶의 의미와 목적, 내

47) 유재경, “영성의 연구 경향과 전망”, 한국실천신학회, 「신학과 실천」 제24권(2010): 207-208.

적자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비직교(oblique)회전방식으로 30개 문항을 6개 요인으로 추출한 이경열<sup>48)</sup>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나 전체변량은 선행연구 56.9% 보다 본 연구가 68.226%로 더 높았다. 성별 학년별 분석 결과, 삶의 의미와 목적은 남자가 여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자의 영적안녕 수준이 더 높다는 강경아·김신정·송미경<sup>49)</sup>(2009)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며, 종교적 안녕 수준이 여자가 더 높다는 황혜리·서경현·김지윤<sup>50)</sup>과 성별 차이가 없다는 이형태<sup>51)</sup>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학년별로는 초월성, 자비심, 자각, 연결성, 삶의 의미와 목적, 내적자원은 중학생 보다 고등학생이 높게 나타나, 내재적 힘의 저장소이기 때문에 쉽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지도와 노력으로 개발되어진다는 한미희<sup>52)</sup>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최근 청소년 자살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으나, 삶의 의미와 목적, 내적가치, 초월적 신념, 공동체 관계로 이루어진 실존적 영성은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매개변수로서의 영향력이 있으므로,<sup>53)</sup> 청소년에게 영성상담과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영성상담과 교육을 실시한다면 무엇보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뚜렷하게 인식하면서 자신의 내적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

48) 이경열, “영성증진훈련프로그램이 영성, 자기 존중감, 사회적 지지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대학원, 2005), 35-38.

49) 강경아·김신정·송미경, “중학생이 지각한 자아존중감, 생의 의미 및 영적안녕에 관한 연구”, 아동간호학회,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제15권(2009): 346.

50) 황혜리·서경현·김지윤, “대학생의 영적안녕과 심리적 안녕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6권(2011): 715.

51) 이형태, “고등학생의 영성과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간의 관계”(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24.

52) 한미희, “청소년을 위한 홀리스틱 접근의 영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색”, 한국홀리스틱교육학회, 『홀리스틱교육연구』 제16권(2012): 167.

53) 윤현숙·박재연·임연옥, “한국인의 스트레스가 자살충동에 이르는 경로분석: 실존적 영성, 가족지지, 우울의 매개변수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제41권(2010): 99-100.

야하겠으며, 절대자와의 연결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수평적으로 대인관계가 개선될 수 있으며, 수직적으로는 종교와 연결되어 공동체의식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 사료된다.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성별 분석 결과 내적통제는 남자가 여자 보다 높으나 호기심과 학습흥미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호기심과 내적통제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높으나 학습흥미는 차이가 없었다. 학습흥미에 대한 보고는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까지를 조사한 김태균<sup>54)</sup>은 학년이 증가할수록 높아진다는 보고하였으나, 타국가와 학업흥미를 비교한 한국 교육개발원<sup>55)</sup>의 연구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습동기와 흥미가 낮다고 보고한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영성이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남자의 경우 영성 하위요인의 도입 순서는 자각, 삶의 의미와 목적, 연결성, 내적자원 순이며,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대한 기여도는 연결성이 자각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삶의 의미와 목적이 가장 먼저 도입되었으며, 그 다음은 자각, 자비심 순이며,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기여도는 자각이 가장 높았다. 이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활동을 하게 되는 대학생의 경우에도 영성이 높을수록 적극적으로 보편적인 지식을 구하고, 흥미있는 것들에 대해 탐구하는 경향이 높다는 선행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라고 하겠다.<sup>56)</sup> 영성이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남자가 여자 보다 높았으며, 이는 남학교에 우선적으로 영성상담이나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영성증진을 위한 접근 방법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기독교 청소년에게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일반 청소년에게 그

54) 김태균, “청소년의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사교육 시간, 학업흥미의 종단적 매개 효과 검증”(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대학원, 2009), 78.

55) 한국교육개발원, “사교육 효과, 수요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0-17」 제4권(2004): 151.

56) 양은미, “대학 신입생들의 영성과 대학교육의 역할에 대한 탐구”, 한국교양교육학회, 「교양교육연구」 제6권(2012): 290.

대로 적용하는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sup>57)</sup> 학교현장에서 상담사의 역할을 통해 기독교 세계관적 자기이해를 위한 상담이나 교육프로그램이 추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건강한 청소년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성경적 상담과 복음적 상담이 적절히 어우러져야 할 것이며,<sup>58)</sup> 활동 내용 중 감사표현과 묵상은 청소년의 행복감 증진과 분노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sup>59)</sup>

## 2. 결론 및 제언

자기주도학습이란 학교학습과 같은 형식적 학습 뿐만 아니라 일상의 환경과 접촉하며 갖게 되는 생활경험이나 직업과정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즉 시적 학습에서도 이루어지며, 자신의 학습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계획하며 실천하는 선택·결정 등을 자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자기관리능력의 향상과 그러한 능력의 향상을 위한 시도이다. 그러나 학습의 흥미가 없는 청소년에게 있어 단순히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우라는 요구는 무리라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영성이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자각, 삶의 의미와 목적이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남자의 경우 연결성과 내적가치에 대한 영향력이, 여자의 경우 자비심의 영향력이 추가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을

57) 오윤선은 최근 기독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말씀묵상기도를 통한 용서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의 용서경험이 자아존중감을 높인다고 보고하면서, 인본주의 심리학에 뿌리를 둔 프로그램들을 기독교 청소년에게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함으로써 본 연구와는 반대입장에서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오윤선, “말씀묵상기도를 통한 용서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의 용서경험이 자아존중감 미치는 효과”,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9권(2012): 239-240.

58) 전형준, “한국교회와 성경적 상담의 이해와 과제”,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9권(2012): 9-46.

59) 오윤선, “감사가 기독교 청소년의 행복감 증진에 미치는 효과 연구”,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8권(2012): 237-263.

위하여 학교상담 현장에서 기독교 세계관적 자기이해를 위한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잠언서에서도 지식과 명철의 연음의 근본은 하나님을 찾는 영성임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sup>60)</sup>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영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신학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아도 청소년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영성상담과 나아가 영성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공교육에서 영성상담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심리학적 측면에서 영성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겠다. 또한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이나 전인건강을 위해서도 자기주도학습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영성 상담의 필요성이 강조 되어야 할 것이다.

---

60) 잠언 3:5~13, 21~28.

【 참고문헌 】

- 강경아·김신정·송미경. “중학생이 지각한 자아존중감, 생의 의미 및 영적안녕에 관한 연구”. 아동간호학회.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제15권(2009): 343-349.
- 고은희·김양순. “아동의 정서지능과 영성지능에 관한 연구”. 한국놀이치료학회. 『한국놀이치료학회지』 제11권(2008): 69-80.
- 권택조. 『영성발달』. 서울: 예찬사, 2000.
- 김복영. “홀리스틱 교육이 추구하는 목적으로서의 영성지능”. 한국홀리스틱교육학회. 『홀리스틱교육연구』 제15권(2011): 115-134.
- 김세리·장선영·남창우. “고등학교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영향을 주는 교수매체 활용 관련 변인 탐색”. 한국교육정보미디어연구. 『교육정보미디어연구』 제18권(2012): 316.
- 김용해. “현대 영성의 초월철학적 이해”. 한국가톨릭철학회. 『가톨릭철학』 제10권(2008): 123-152.
- 김태균. “청소년의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사교육 시간, 학업흥미의 중단적 매개효과 검증”.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2009.
- 박노권. “심리적 건강과 영성”. 한남대학교 기독교문화연구원. 『기독교문화연구』 제11권 (2006): 139-154.
- 박외자.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학습관여태도가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대학원, 2010.
- 박준하. “청소년 기독교 영성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검증”.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대학원, 2011.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제 3기(2005)-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 및 보건의식행태』. 서울: 보건복지부, 2006.
- 송순재. “학교교육의 방향전환을 위한 새로운 영성 교육”. 한국홀리스틱교육학회. 『홀리스틱교육연구』 제6권(2002): 131-163.
- 신승환. “영성 개념의 철학적 사유 지평”. 한국가톨릭철학회. 『가톨릭 철학』 제10권(2008): 5-33.
- 양은미. “대학 신입생들의 영성과 대학교육의 역할에 대한 탐구”. 한국교양교육학회. 『교양교육연구』 제 6권(2012): 289-328.

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 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2012.

오윤선. “청소년발달특성 문제에 관한 기독교 영성과 상담심리의 통합적 접근”.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1권(2008): 209-236.

오윤선. “감사가 기독교 청소년의 행복감 증진에 미치는 효과 연구”,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8권(2012): 237-263.

오윤선. “말씀묵상기도를 통한 용서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의 용서경험이 자아존중감 미치는 효과”.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9권(2012): 239-240.

유성경·심혜원.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제16권(2002): 189-206.

유성경·홍세희·최보윤. “가정의 위험요소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애착, 실존적 영성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제18권(2004): 393-408.

유재경. “영성의 연구 경향과 전망”. 한국실천신학회. 『신학과 실천』 제24권(2010): 183-212.

윤현숙·박재연·임연옥. “한국인의 스트레스가 자살충동에 이르는 경로분석: 실존적 영성, 가족지지, 우울의 매개변수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제41권(2010): 81-105.

이경열. “영성증진훈련프로그램이 영성, 자기 존중감, 사회적 지지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대학원, 2005.

이경은·하은혜. “청소년 사회불안에 대한 취약성-스트레스모델: 대인불안과 수행불안을 중심으로”.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인지행동치료』 제11권(2011): 39-57.

이상우. “영성의 통합적 의미”.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월례회 자료집』 제3권(2010): 1-23.

이신숙.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이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대학원, 2013.

이은철·김민정. “청소년을 위한 영성 척도의 개발”. 한국열린교육학회. 『열린교육연구』 제18권(2010): 243-263.

이지영. “홀리스틱 교육의 기초로서 영성 및 영적 발달 개념에 대한 논의”. 한국홀리스틱교육학회. 『홀리스틱교육연구』 제16권(2012): 113-128.

- 이해리·조한익.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개발”. 한국청소년연구원. 「한국 청소년연구」 제16권(2005): 161-206.
- 이형태. “고등학생의 영성과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 전명수. “개인주의적 영성운동과 세속화 논쟁”.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 201」 제13권 (2010): 55-79.
- 전형준. “한국교회와 성경적 상담의 이해와 과제”, 한국복음주의 기독교상담학회. 「복음과 상담」 제19권(2012): 9-46.
- 정미경.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내면화·외현화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의 매개효과”.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학회지」 제26권(2012): 271-290.
- 조은하. “통전적 영성교육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2001.
- 주호수. “자기 주도적 학습의 개념화와 교육적 시사점”. 한국교육과정학회. 「교육과정연구」, 제21권(2003): 211.
- 채서일·김선철·최수호. 『SPSS 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서울: B&M BOOKS, 2006.
- 채유경. “지각된 가족 기능성, 부부갈등, 자아존중감, 영성 및 청소년 공격성간의 관계”.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예술심리치료연구」 제1권 (2005): 74-90.
- 한국교육개발원. 『사교육 효과, 수요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4.
- 한미희. “청소년을 위한 홀리스틱 접근의 영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색”. 한국 홀리스틱교육학회. 「홀리스틱교육연구」 제16권(2012): 151-171.
- 현정수. “청소년 행복의 구성요소에 관한 이론적 재구성과 척도개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대학원, 2011.
- 홍대우·김준경. “청소년 전인건강 척도 개발”. 한국상담학회. 「상담학연구」 제 9권(2008): 67-83.
- 홍은숙. “행복한 학교를 위한 교육적 성찰”. 한국도덕교육학회. 「도덕교육연구」 제24권(2012): 241-265.
- 황혜리·서경현·김지윤. “대학생의 영적안녕과 심리적 안녕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6권(2011): 709-724.
- Borich, G. *Effective Teaching Methods*. 5th. ed. Boston: Pearson Education,

2002.

- Conn, Joann Wolski. "Spiritual Formation." *Theology Today* 56(1999): 86.
- Cully, Iris, V. *Education for Spiritual Growth*. 오성춘 외역. 『영적성장을 위한 교육』.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86.
- Driscoll, M. P. *Psychology of Learning for Instruction*. 3rd. ed. Boston: Person Education, 2005.
- Good, M., & T. Willoughby. "The Role of Spirituality Versus Religiosity in Adolescent Psychosocial Adjust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2006): 41-55.
- Groeschel, Benedict J. *Spiritual Passages*. 김동철 역. 『심리학과 영성』. 서울: 성바오로, 2002.
- Guglielmino, L. M. *Development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Ph.D. diss., The University of Georgia, 1977.
- Hawkes, M. "Facilitating Educational Restructuring: Apply Lessons Learned from the Past." *Educational Change* 113(1992): 96-102.
- Hodge, D. R., P. Cardenas, & H. Montoya. "Substance Use: Spirituality and Religions Participation as Protective Factors among Rural Youths." *Social Work Research* 25(2001): 153-161.
- Holder, D. W., R. H. Durant, & T. L. Harris. "The Association between Adolescent Spirituality and Voluntary Sexual Activity."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6(2000): 295-302.
- Keller, J. M. "Strategies for Stimulating the Motivation to Learn." *Performance & Instruction*. 26(1987): 1-7.
- Knowles, M. S. *Self-Directed Learning: A Guide for Learners and Teachers*. Chicago: Follett Publishing Co., 1975.
- Miller, L., M. Davies, & S. Greenwald. "Religiosity and Substance use and Abuse among Adolescents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tud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9(2000): 1190-1197.
- Parker, J. Palmer. *To Know As We Are Known*. 박원호 역. 『기독교 교육 인식론』. 서울: 도서출판 광나루, 1991.
- Pearce, M. J., T. D. Little, & J. E. Perez. "Religiousness and Depressive

- Symptom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2(2003): 267–276.
- Perez, J. E., T. D. Little, & C. C. Henrich. “Spirituality and Depressive Symptoms in a School-based Sample of Adolescents: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Mediated and Moderated Effec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4(2009): 380–386.
- Pintrich, D. A. “The Role of Motivation in Promoting and Sustaining Self-regulated Lear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31(2001): 459–470.
- Snethen, J. A., M. E. Broome, S. Kelber, & B. A. Warady. “Coping Strategies Utilized by Adolescents with End Stage Renal Disease.” *Nephrology Nursing Journal* 31(2004): 41–49.
- Wright, L. S., C. J. Frost, & S. J. Wisecarver. “Church Attendance, Meaningfulness of Religion,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2(1993): 559–568.

【 Abstract 】

Impact of Spirituality on Self-Directed Learning  
for the Adolescent

**Young-In Byun**

Dongseo University

After the relationship between youth spirituality and self-directed learning was analyzed, the following findings were given: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spirituality of the students, the boys found more meaning and purposes in life than the girls, and the high school students were ahead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in terms of transcendence, compassion, awareness, meaning and purpose of life and inner resources. When their self-directed learning was assessed, the boys excelled the girls in inner control, and the high school students were more curious and better at inner control than the middle school student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mpact of spirituality on self-directed learning, both of the boys and girls were under the positive influence of their meaning and purposes of life. Besides, the boys were additionally affected by connectedness and intrinsic value, and the girls were additionally affected by compassion.

More findings from the adolescent's gender, rather than higher grade level is higher spirituality, spirituality showed a distinct life of meaning and purpose, higher awareness level of adolescents' self-directed learning skills to increase.

**Key words:** spirituality, self-directed learning, adolescent, awareness, meaning and purpose of life